



+ 장익선 ·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서양 미술 속 빛과 색

■ 모네(Claude Monet)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컬러

1부. 인상주의 회화의 빛과 색의 표현

2부. 모네(Claude Monet)

3부. 람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우리는 지난 시간동안 영상과 조명 디자인 과정의 모티브를 위해 여러 작품 및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분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수집 및 분류의 과정에서는 'Image Map'에 대한 개념과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분석의 과정에서는 "Zone system"을 도입, 빛의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번 시간에는 모네(Claude Monet)의 작품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빛의 노출과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한다.

빛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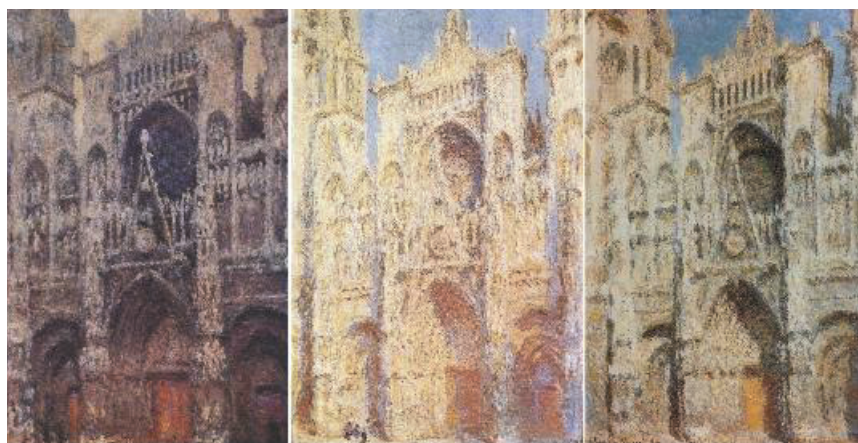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모네의 작품 분석에 "Zone system"을 도입, 빛의 노출과 질감, 콘트라스트 등의 느낌들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영상물이 아닌 미술 작품에 사진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빛의 세기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강약의 효과재현을 그림 속에서 찾아야 하는 객관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모네의 작품들이 "Zone system"을 통하여 빛의 노출을 분석할 만큼 실제 빛의 표현에 가깝고 세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빛의 노출 분석은 왜 중요한 것일까?

빛은 단순히 밝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약과 방향, 거기에 색도 가지고 있다. 특히, 빛의 강약은 피사체를 비추면서 크고 작은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피사체 표면의 질감을 표현시키기도 하고, 부피감과 입체, 평면성을 느끼게도 한다.

이런 효과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조명과 같이 설정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내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도 한다. 따라서, 빛의 노출 분석은 곧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담긴 빛의 강약의 발견이고, 영상 속에 담긴 감성의 발견이기도 한 것이다.



Rouen Cathedral, The Portal, Grey Weather,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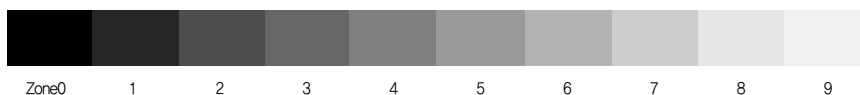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Grey Weather,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Rouen Cathedral, The Portal in the Sun, 1892



[Zone Scale]

컬러, 그 경이로움

컬러를 과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분광되어 나타나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컬러는 측정 가능한 파장을 지닌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컬러의 정의를 단순히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컬러는 물리적, 생리학적, 심리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만족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역과 물감이나 잉크 등이 표현할 수 있는 색역, 그리고 모니터나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색역이 모두 다르다. 또한, 인간은 같은 컬러를 본다고 할지라도 신체조건, 나이, 건강상태, 심지어는 컬러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미술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도 어떤 조명환경 아래서 감상하는가, 감상자의 생리학적 조건은 어떠한고, 심리상태 또한 어떠한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와 느낌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컬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복합적이며, 매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고갱’은 이런 컬러의 특성을 두고 컬러의 “내적인 힘”이라고 표현했으며, “컬러란 단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개별적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Les Coquelicots : environs d'Argenteuil(1873, Claude M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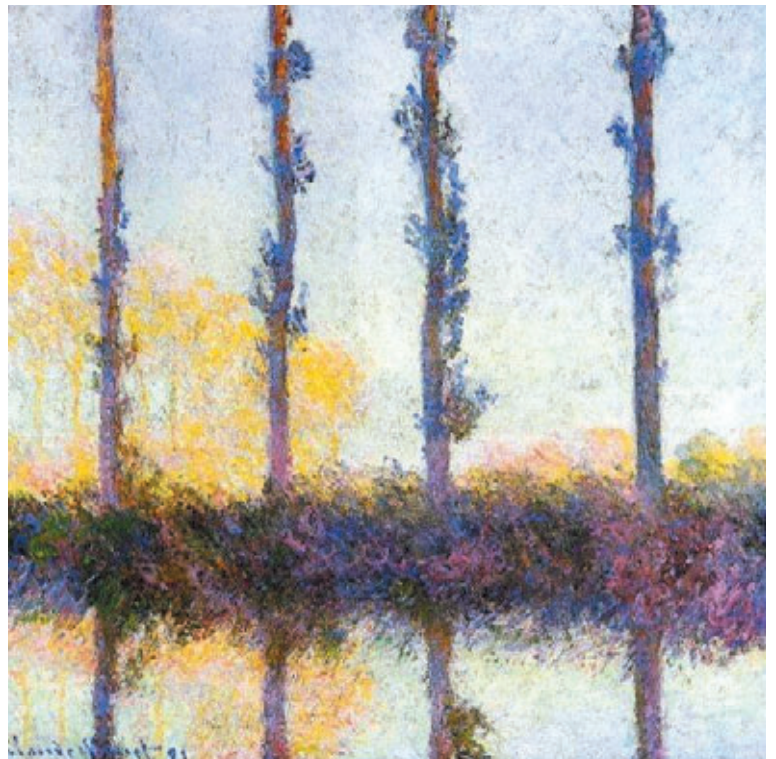
◆ 작품평 : 선연한 빛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색채의 독자적 주장을 회화적 차원으로 표현했다. 상하로 양분시킨 늘어선 나무들의 검푸름과 경쾌한 터치로 처리된 개양귀비의 빨간 반점, 푸른 하늘과 솜털구름, 그리고 화면 중앙의 멀리 보이는 건물, 포즈를 취한 여인의 옷과 양산의 수색이 빛을 담백 받았으면서도 독립된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¹⁾

1)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상주의의 빛과 색채의 상관관계” 백준권 P.26

컬러를 완전히 분리시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개 컬러는 서로 다른 두 컬러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그 반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서로 다른 컬러 사이의 “Contrast”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색상은 주변색과 콘트라스트를 이루면서 복합적인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Color contrast”라 하며,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 감각대비, 공간대비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모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양귀비의 빨간 반점이 들판의 컬러와 뚜렷한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다. 이미지를 한층 강조할 수 있는 “Color contrast”의 좋은 예이다.



[The Four Trees, (Four Poplars on the Banks of the Epte River near Giverny), 1891]

◆ 작품평 : 이 작품은 과감하게 잘려진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목가적인 어떤 광경은 사각형 속에서 하나의 탐구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서의 모네의 관심은 네 그루의 나무줄기 하단부와 그것들이 물에 비친 그림자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하여 화면은 네 개의 수직적 줄무늬와 하나의 수평 띠로 분할된다. 수평 띠는 강둑과 그 그림자를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색조를 보면 빨간색과 녹색, 노란색과 보라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화면 전체가 보색대비로 표현됐다.²⁾

2)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상주의의 빛과 색채의 상관관계” 백준권 P.39

색상환에서 보색을 이루는 컬러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원색과 보색은 조화를 이루는데, 각 원색과 보색은 밝기가 서로 다를지라도 어느 색조를 강조하고 완화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나 느낌이 매우 달라진다.

모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색대비란 색상환에서 서로 상반되는 색끼리 나란히 병치시켜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며, 컬러를 캔버스 위에 나란히 찍어 감으로서 일정한 시각적인 혼합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이다. 두 원색의 물감을 서로 혼합하지 않고 밝음을 잃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두 색을 서로 혼합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모네의 이런 시도는 자연의 순간적인 빛을 담기위해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지 않고 캔버스 위에서 직접 색채를 혼합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자연의 빛이 물감의 혼합으로 인해 표현되지 못함을 인식한 그의 표현 기법이었다.

모네가 활용한 기법은 프랑스의 화학자 슈브렐이 『색의 동시대비 및 채색된 물체의 활성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으며, 그는 조화란 그저 '보기 좋은'의 인식을 뛰어넘는다고 보았다. 그는 "보색대비는 단순히 각 색상의 조화로운 배열 이상의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질서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모네는 1897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수련을 소재로 한 무려 250여점의 연작 작품을 탄생시켰다. 초기 작품은 수련이 주제를 이루기보다는 1895년 연못 한쪽에 설치한 일본식 다리를 배경으로 주로 원경의 연못을 그렸으나, 서서히 원근법이 사라지고 연못 주변 풍경의 비중이 줄어들어 결국 캔버스에는 물과 수련만이 가득한 작품들을 그려내게 된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물에 비친 하늘과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수련의 모양이 다양하게 그려졌다. 물에 비친 반사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오묘한 빛의 향연을 집약적이고,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컬러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과 감수성을 불러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노란색과 보라색은 밝음/어두움을, 청색-녹색과 주황색-적색은 차가움과 따뜻함을, 파란색과 주황색-적색은 축축함/건조함이라는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NYMPHEAS, 1897~1926]





이런 감수성은 일광의 색온도 변화에 따른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컬러에 대한 감수성과 경험이 아닐까 싶다.

모네의 작품들이 자연 속에서 사실성에 기초하여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색채가 주는 현란함과 형태의 단순화로 인해 종종 사실성이 없는 그림처럼 오인됐다. 또, 색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모티브가 없는 그림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연작 시리즈에서 특히 심했다.

모네의 연작에서 모티브가 사라졌다는 견해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서 연속성이나 빛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노력과 연구는 20세기 현대 미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지베르니의 양귀비 벌판, 1890~1891]

'조르주 클레망소'³⁾의 말을 끝으로 모네의 노력과 연구가 얼마나 미술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글을 마칠까한다.

"나는 네 개의 캔버스를 앞에 두고 양귀비 벌판을 바라보며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잡으려는 듯 팔레트를 바꿔가는 모네를 보았을 때 그가 빛의 연구에 몰입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소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가 소재에서 점점 더 많은 빛의 변화를 발견해 감에 따라 연구는 더욱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점진적인 진화였고 관찰과 느낌과 표현에서의 새로운 방법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혁명이었다. 세 그루의 포플러가 있는 이 양귀비 벌판은 인류의 지각과 표현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작품으로 기록될 것이다."

3) 1841~1929, 프랑스의 정치가, 1870년 몽마르트의 장으로 정치에 입문, 1906년에는 내상, 뒤에는 수상을 겸했다.